

목포농협,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최우수 협동조합 '우뚛'

전국 1천100여 농·축협 중 최고점 수상
유통 혁신·내실 경영 등 금융·경제 성장
급변 농업 환경 대응·조합원 지원 최선

목포농협이 전국 1천100여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최고 권위의 경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우수 협동조합의 반열에 올랐다.

11일 목포농협에 따르면 전남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업적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농협중앙회의 종합업적평가는 전국 단위 농·축협을 대상으로 경제 사업과 신용 사업, 교육 지원 등 1년간의 경영 전반을 심사하는 가장 비중 있는 지표다.

목포농협은 선제적인 유통 구조 혁신과 내실 경영을 바탕으로 금융과 경제 부문에서 완벽한 동반 성장을 일궈내며 최상위 점수를 획득했다.

이번 전국 1위 달성의 가장 든든한 배경에는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 10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업적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농협 제공>

유통 대전환을 통한 경제 사업의 비약적인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앞서 목포농협은 지난 2017년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용당점을 선보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의 포문을 연 데 이어, 지난해 1월 북항점을 추가로 개점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대폭 넓혔다.

이러한 공격적인 투 트랙 유통망은 지역사회에 완벽히 정착했고, 사업 진출 9년여 만에 '매출

300억원 달성'을 거머쥐는 성과로 이어졌다.

두 직매장은 지역 농가에 안정적인 고정 판로를 제공해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한편, 목포 시민들에게는 매일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

는 핵심 생활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용 사업 부문 역시 불확실한 대내외 금융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성장세를 증명하며 전국 1위 달성에 쾌거를 박았다.

지역민의 굳건한 신뢰를 자산 삼아 여신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상호금융 대출금 8천억원 고지를 넘어섰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동반한 건전 결산을 이뤄내며 지역 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음을 탄탄한 재무 구조로 입증했다.

목포농협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기점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조합원 중심의 실익 지원 사업을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은 "전국 1위라는 값진 영광은 목포농협을 굳게 믿고 성원을 주신 조합원과 목포 시민,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빛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빈틈없는 투명 경영을 통해 농업인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1등 농업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전남도, TV홈쇼핑 농특산물 판매 지원

업체당 송출료 최대 1천200만원

내일까지 32개 참여 업체 모집

전남도는 11일 "지역 농식품 생산업체의 판로 확대와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TV홈쇼핑 방송판매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농식품을 생산하는 전남 농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지원과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 3억8천400만원을 들여 32개 업체를

선발하며, 선정된 업체에 TV홈쇼핑 방송 송출료로 업체당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사업자등록을 한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일시 대량 판매가 가능하고 제조 환경과 관리 체계가 TV홈쇼핑사의 방송판매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방송은 공영홈쇼핑, NS홈쇼핑, KT알파쇼핑, 쇼핑엔터 등 4개 홈쇼핑 채널을 통해 라이브 또는 티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상품 품평회를 통해 확정된다.

TV홈쇼핑에 참여하면 통상 30%에 달하는 판매 수수료를 8-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참여 업체의 실질적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업체는 13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소재지 시·군 농식품 유통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업체가 TV홈쇼핑을 통해 전국 소비자와 만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농기센터, 치유농업사 교육생 모집

오는 14일까지 총 40명 선발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1일 "전남대학교 농업실습교육원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치유농업사'

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

올해 교육은 오는 4월4일부터 8월8일까지 총 142시간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 서비스의 이해,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 관리 등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은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14일까지 전자우편(gms4533@hanmail.net)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생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40명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농업실습교육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문의는 전남대학교 교육담당팀(062-530-0624)으로 하면 된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광주만의 특색 있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광주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 하나로마트 매출 300억 결실

서광주·평동농협 각 200억·100억 달성

농협광주본부, 농가 소득 증대 지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와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하나로마트 사업 성과를 기념하는 시상식을 열고 우수 농협을 격려했다.

광주지역본부는 11일 "지난 9일 농협광주본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하나로마트 매출달성' 시상식에서 서광주농협과 평동농협이 각각 매출 200억원과 1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나로마트 매출 달성'은 매년 말 전국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사업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매출액이 100억원 단위 기준을 최초로 초과 달성했을 때 수여되며 단순한 매출 성과를 넘어 마트사업에 대한 임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산물 판매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협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

련됐다.

이번에 200억원 달성탑을 받은 서광주농협과 100억원 달성탑을 받은 평동농협은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 농가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판촉 활동을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농산물 판매 거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농협광주본부는 앞으로도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철호 농협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믿고 이용해 준 지역민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농협 하나로마트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 농업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든든한 유통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